“영산의식 예술적 가치 조명 박차”

호남 부루나존자를 찾아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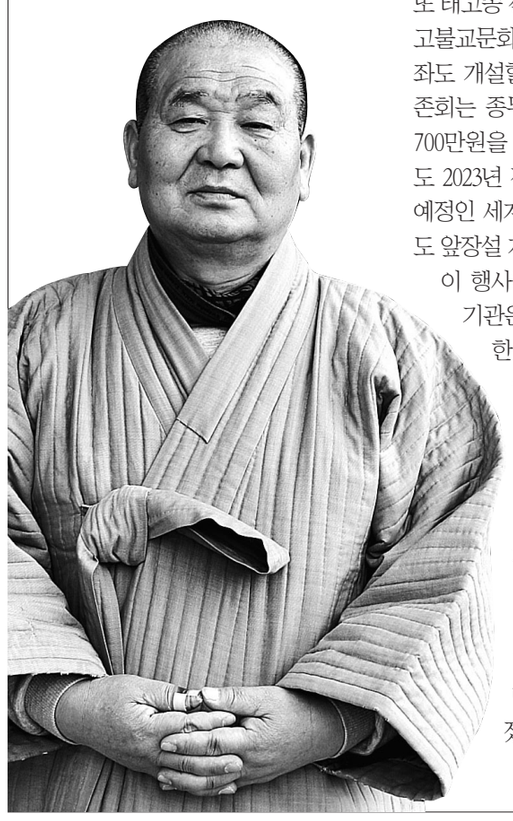
전북영산보존회장 법륜 스님

“화려하면서도 섬세하고, 장엄하면서도 예술적인 아름다움이 깃든 전북영산작법 보존과 보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998년 전북지역 불교무형문화재 최초로 전라북도 무형문화재 18호에 지정된 ‘전북영산작법보존회’ 회장 법륜 스님(전주 동고사 주지)은 전북영산작법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하다. 현재 전북영산작법보존회원인 37명의 스님들은 전라북도로 무형문화재 전수자로 등록돼 있고, 이 중 6명의 스님이 이수자로 지정됐다. 매년 심사를 거칠수록 이수자는 점차 늘어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전북영산작법은 불교의식을 떠나 예술적 가치로서 전 세계 어느 곳에 내놓아도 자랑할 만한 우리 문화유산입니다. 전 회원들이 이러한 가치를 지키고 발전시켜나갈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하며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전북영산작법보존회는 전국 다양한 곳에서 초청을 받아 활발한 공연을 펼치며 불교무형문화재 보급에 나서고 있다. 매년 국립무형문화유산원에서 정기적인 영산작법 공연을 펼쳐 많은 사람들로부터 찬사를 받는 한편, 전국각지에서 작법과 어산에 관심 있는 스님과 한국무용을 공부하는 학생들로부터 관심을 받기도 한다. 특히 호국보훈의 달인 6월에는 6.25전쟁으로 인해 많은 전사자가 속출한 의왕 백운산과 모악산 일대의 전쟁희생자 위령재에 참여했고, 세월호 참사 발생 당시에는 희생자들의 극락왕생과 조속한 구조를 기원하는 영산재를 봉행하기도 했다.



전통문화를 계승 · 발전시키기 위해 보존회는 보수 교육을 게을리 하지 않는다. 매년 3회에 걸쳐 영산작법보존회 전수관에서 열리는 교육과 연수에는 전 전수자 스님들이 참석해 1주일여에 걸쳐 영산재 전 과정을 재연한다. 또 영산작법 보급을 위해 일반인들에게도 문호를 개방해 작법무와 범패소리에 관심 있는 누구나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동안 12명의 일반인들이 스님들로부터 영산작법을 익혔다.

불교전통문화 계승 위해 일반인에게도 문호 개방

“영산작법은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부처님께서 영산회상에서 설법하시는 모습을 재현한 전통의식입니다. 기술 습득보다 영산재에 담긴 뜻과 의미를 되새기면서 보수교육과 연수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존회장 법륜 스님은 전북영산작법의 보존과 계승을 위해 체계적인 교육을 계획하고 있다. 불교전통의식에 해박하고 조예가 깊은 스님들을 초빙해 전문적인 강좌를 마련할 예정이다. 또 태고종 전북종무원과 뜻을 모아 태고불교문화대학을 통해 영산작법 강좌도 개설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보존회는 종무원 발전기금과 장학기금 700만원을 기탁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2023년 전북 새만금지역에서 개최 예정인 세계 잼버리대회 성공 기원에도 앞장설 계획이다.

이 행사를 위해 전라북도 등 관계기관은 물론 전북종무원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모든 역량을 쏟아 부을 예정이다.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전북지역 불교의 전통의식인 영산작법이 오래도록 유지되면서 계승 ·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북영산작법의 계승과 발전을 다짐하는 법륜 스님의 목소리에 힘이 느껴졌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燈 밝히고 내 마음도 밝히고”

광주불교연합회 강습회 봉축행사 준비 일환으로



광주불교연합회가 개최한 전통등 강습회에서 참가자들이 직접 만든 등을 뽐내고 있다.

빛고을 광주를 환히 밝힐 전통등을 만드는 교육이 마련됐다.

광주불교연합회(회장 연광)는 12월 16~17일 양일간 광주불교회관 2층 법당에서 ‘빛고을관등회 전통등(燈) 강습회’를 열고 내년도 부처님오신날 봉축행사에 사용될 행렬등 만들기 강좌를 실시했다.

연등회보존위원회 지원으로 마련된 이번 강습회에는 스님들과 40여 명의 지역 사찰 및 단체 실무자들이 참여해 큰 호응을 얻었다.

광주불교연합회장 연광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부처님오신날 봉축행사 중에서 전통등을 만들고 행진하는 것은 1500여 년을 이어온 우리 민족행사다. 특히 전통등은 한지에 아름다운 등불을 켜는 것으로, 등불의 아름다움이 혼탁한 세상을 이겨내고자 하는 부처님의 은은한 지혜와 자비를 상징한다”며 “각 사찰에서 아름다운 등을 만들어 봉축행사에 많이 참여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강습회는 16일 오리엔테이션과 골조 만들기, 배접, 아교 물들이기에 이어 17일 채색 및 꾸미기로 진행됐다. 이 자리서 전영일 전통등공방 작가 등 4명이 지도하며 복주머니등, 목어등, 보리수등 만들기를 돕고, 전통등 만들기에 필요한 다양한 과정을 소개했다.

행사를 지원한 강문정 연등회보존위원회 팀장은 “다른 지역에 비해 광주지역의 봉축행사가 활발하다. 앞으로도 지역사찰에서 전통등을 많이 보급하고 활용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날 강습회를 시작으로 내년 광주지역 봉축행사인 빛고을관등회에는 다양한 행사가 펼쳐진다. 본 행사인 법요식 및 연등행진, 대동한마당(2018년 5월 12일)을 비롯해 각 사찰별 율동강습회, 등 만들기 강습회 등 다양한 사전 교육행사도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광주불교연합회는 지역 봉축행사 활성화를 위해 정기적으로 관련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한겨울 덥히는 ‘자비의 연탄’

군산사암연합회 대중 저소득 가구 연탄 나눠



군산사암연합회 스님과 군산불교자원봉사단 불자들이 금반마을서 저소득 가구를 돕기 위해 연탄을 나르는 모습.

군산사암연합회(회장 도연, 상주사 주지)가 연탄으로 겨울 난방을 해결하는 홀몸어르신과 저소득계층을 위해 자비의 연탄 나눔행사를 펼쳤다.

군산사암연합회 스님들과 불자 50여 명은 12월 16일 군산시 대야면 금반마을 일대에서 저소득계층 17가구에 각 300장씩 5,000여 장의 연탄을 전달했다. 매서운 한파에도 불구하고 연합회장 도연 스님을 비롯한 군산사암연합회 스님과 불자들은 군산시에서 추천한 저소득층 가구를 방문해 자비의 연탄을 직접 배달했다.

연합회장 도연 스님은 “충분하지는 않지만 어려운 우리 이웃들이 용기와 희망을 가지고 추위를 이겨냈으면 하는 마음에 연탄을 전달하게 됐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연탄나눔 봉사활동에 동참한 군산불교자원봉사단 불자들은 “지역불자들이 스님들과 함께 힘을 모아 어려운 이웃을 위한 자비행에 적극 동참했다. 사부대중이 함께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큰 것 같다”고 입을 모아 말했다.

한편 군산사암연합회는 군산지역 종교인들과 함께 지역 소외이웃을 위한 사랑의 김장나눔 행사에 꾸준히 참여해 왔으며, 올해는 군산 4대 종교 평화합창제를 주관하는 등 종교간 소통과 화합에도 앞장서고 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생명사상 배운 9개월 “공동체 성품 갖췄어요”

생명평화실천단 6기 졸업식

전북불교네트워크 부설 청소년생명평화실천단(단장 오종근)이 청소년들에게 생명존중 사상을 일깨워주고, 스스로 삶의 주인공으로 바로설 수 있도록 펼친 9개월간의 활동을 마무리했다.

12월 16일 전주 전북생명평화센터 강당에서 열린 청소년생명평화실천단 6기 졸업식에는 금선암 주지 덕산 스님, 오종근 청소년생명평화실천단장, 유정희 자연음식문화원장, 실천단원, 보조교사 등 60여 명이 참석했다.

전북지역 고등학생 40명으로 구성된 6기 청소년생명평화 실천단은 지난 4월 발대식을 시작으로 9개월 동안 템플스테이, 분반체험, 생명평화 모내기, 여름캠프, 노인 나눔잔치, 생명평화 벼 베기, 생명수 제작 등의 활동을 진행했다. 모범적으로 활동한 김성원(동암고2) 학생이게 조계종총무원장상, 김다혜(전주대 사대부고2) 학생이 전라북도교육감상, 조현우(한일고2) 학생이 생명평화실천상을 수상했다.

덕산 스님은 격려사를 통해 “앞으로 인생을 개척해나가야 할 시기에 중요한 가치판단의 기준을 마련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적 인성을 함양하는 시간이 됐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꾸준한 생명나눔운동 “부처님 참 제자 본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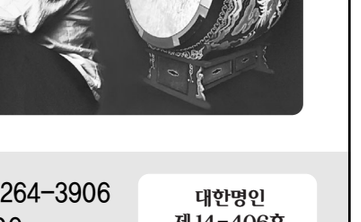
광주생명나눔, 우수봉사자 시상

생명나눔실천 광주전남본부(본부장 현지)는 12월 20일 광주 베네치아에서 ‘2017 생명나눔의 날’ 행사를 개최하고, 연간 활동을 점검하는 한편 우수 봉사자에 대해 시상했다.

이 자리서 본부장 현지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나눔을 실천하는 것은 부처님의 자비를 실천하는 것으로, 자비를 실천하는 후원자와 봉사자야말로 부처님의 참 제자”라고 말했다.

시상식에서는 김명선 · 박수정 씨가 각각 광주시장상과 광주교육감상을 각각 수상했다. 또 박선희 · 이숙희 · 정진혁 씨에게는 공로패와 감사패, 자원봉사자상이 수여됐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탈종공고

- 사찰명 : 소림사
- 주 소 : 서울시 구로구 중앙로 5길 62. 4동 411호 (고척동 서울가든 아파트)
- 법 명 : 묘륜(나영옥)
- 승려번호 : 제38-2621호

위 사찰과 위 인은
귀 종단의 종지종풍이 맞지않아
이에 탈종함을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27일

(사)한국불교염불종 총무원장 법하

2018년 실전 사주 명리학 무료강의 제10기 수강생 모집

그동안 제1기에서 제9기까지 전국에서 1,000여분의 스님이 수료하셨습니다.

2018년에도 스님과
불심 깊은 불자들에게 무료로
명리학을 가르쳐 드리고자 합니다.

대 상

1) 현재 사찰을 운영하고 계시는 스님이나 총무보살
2) 불심 깊은 불자님들

◆수강신청방법 : 전화로 신청하시면 안내문을 보내드립니다.

① 교육기간 : 2018년 3월 13일 ~ 9월 18일까지
② 수 강 료 : 약 7개월 교육 전기간 강의료 무료
③ 교육시간 : 매주 화요일 오후 1시 ~ 오후 4시 (3시간)
④ 개강일자 : 2018년 3월 13일 (화요일) 오후 1시
⑤ 책 자 : 초급에서 고급비법까지 총 8권 (책자대금 : 20만원 준비)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오포로 345-4 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768-8413

양지국악사

사찰전통 大법고 · 법당천도법고 · 태징 · 목어



대북



2자



태징



서울매장 :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46-1번지 02)3673-3442, 764-2159 / 010-5264-3906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445번지 031)793-3906 / 010-5264-3906
계좌번호 : 농협 221098-52-250376 조남양 www.yangjikukak.com

대한명인 제14-406호 대고제작